조계종 중앙종회, 예산안 승인 없이 폐회

‘집행부 보이콧’ 기반한 종단 초유사태

6일간 성원부족으로 유회
11월 16일 회기 마지막도
정족수 미달로 자동 폐회
안건일괄 다음 회기 이월
종회 파행에 엇갈린 시각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16일 222차 정기회를 정족수 미달로 폐회했다.

조계종 제222차 중앙종회 정기회가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수차례 유회를 반복하다가 결국 폐회했다. 결산 종회의 핵심안건인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 승인의 건도 다루지 못한 데다가, 그 원인이 ‘집행부 보이콧’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고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정문) 제222차 정기회가 11월 16일 폐회했다. 11월 11일부터 지속된 유회 사태가 회기 마지막날까지 이어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속개하지 못한 채 자동으로 폐회됐다.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할 결산종회가 예산안 승인 없이 유회를 반복하다 폐회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내년도에 집행할 종무행정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종법에 따르면 중앙종회는 소집권자인 종회의장 외에도 총무원장이 필요시 15일 전에 소집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임시회 소집이 12월 이후로 미뤄지거나 안건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종무행정에도 불가피하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종헌에 따라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된다.

종헌 제44조에 따르면 새 회계년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 종무기관은 예산안 의결시까지 △시설운영을 위한 예산 △종법상 지출의무 이행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지속사업 등 일부 목적에 대해서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집행이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이번 폐회 사태는 단순한 성원 미달이 아니라 집행부를 향한 중앙종회의 사실상 ‘보이콧’이었다는 점에서 시각이 엇갈린다.

앞서 중앙종회는 11월 11일 종회를 속개할 예정이었지만 성원 부족으로 첫 유회를 선언했다.

이날 총무분과위원장 선광 스님은 “10일 본회의 종책질의 과정에서 정청래 의원의 불교폄훼 발언에 대해 집행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종회 불참은 종회의원 스님들 개개인의 의사표현”이라고 밝혔다.

이후 종회는 의사일정 기간 중 매일 열렸지만 속개되지 못했고,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11월 15일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에게 일괄 보직 사임의사를 전달했다. 종회 유회사태와 관련, 집행부를 대표하는 소임자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16일 역시 정기회는 속개되지 못한 채 파행됐다.

이와 관련 어떤 상황이든 종회 파행은 중앙종회의 직무상 실책이라는 지적과 함께, 집행부 역시 중앙종회의 의사표시 이후 일괄사표를 제출했을 뿐 근본적인 쇄신의 토대나 발전적인 변화를 이끌지 못했다는 엇갈린 시각이 나온다.한 의원 스님은 “중앙종회 상당수의 의원 스님들이 집행부의 예산안을 보이콧 한 것은 대단히 무거운 결정”이라며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책임있는 자세를 원했지만 현재 집행부에는 이러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임시회가 열리더라도 개회될 지 미지수”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런 가운데 11월 17일 총무원 소임자 스님들이 ‘정청래 의원의 불교 폄훼 발언’과 관련해 참회와 성찰의 1080배를 봉행한데 이어, 총무부장 금곡 스님이 소임을 내려놓은 것으로 확인돼 이후 중앙종회 임시회 일정 및 개회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승가화합 최우선 가치 삼겠다”

11월 16일 종단화합대법회
“승가 화합 최우선 가치로”
발원문 낭독 · 33배 참회정진



“저희들은 모든 허물이 이기심으로 비롯됐음을 인정하고 불보살님께 진심으로 참회합니다. 지혜로움과 자비심으로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본연의 길을 여일(如一)하게 걷겠노라고 역대조사께 서원합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이 11월 16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한 ‘종단화합대법회’는 참회와 서원의 자리였다.〈사진〉 70여 명의 동참 대중들은 “일불제자로서 승가화합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부처님 전에 서원했다.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화쟁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대법회는 종단 내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종단안정과 화합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이 2020년 신년기자회견 당시 천명한 대화합 조치를 실현하기 위해 화쟁위원회는 지난 8월, 종단화합과 안정, 승가 대통합을 위해 종단화합대법회 개최를 건의했다. 이어 9월부터 ‘승가화합을 위한 소위원회’를 별도 구성, 종단화합대법회에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

내부적인 성찰과 반성으로 시작된 이날 법회에서 동참대중들은 참회와 화합 발원문으로 법회의 의미를 되새겼다. 대표 낭독한 하림 스님은 “부처님 유훈에 따라 승가공동체 화합을 제일덕목으로 삼고 참회와 화합을 통한 조계종의 혁신으로 미래의 한국불교를 열어가는 디딤돌이 되겠다”고 발원했다.

동참대중은 이어 죽비소리에 맞춰 33배 참회 정진을 이어갔다. 종정 진제 스님은 원로회의 의장 세민 스님이 대독한 교시를 통해 대화합을 강조했다. 스님은 “서로가 용서하고 존중하는 대화합의 장에서 우리의 시대정신인 불조의 소명을 우러러 높이 받들어 불교중흥 대장정에 백절불굴의 신념과 원력으로 대법륜을 굴려 이 땅에 불국정토를 성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행 스님은 치사를 통해 화합 승가의 자리로 돌아갈 것을 약속했다. 스님은 “우리 종단은 갈등이 부정과 파괴의 투쟁으로 자라지 않도록 화쟁하는 역량이 부족했다”며 “서로가 함께 승가를 이루는 도반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종단의 화합과 혁신을 통한 발전에 손 맞잡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원팀 동국…오고 싶은 학교 만들겠다”

건학위 최고위원장 돈관 스님, 17일 간담회서

법인 건학위 출범 6개월 만에
산하 115개 기관 건학위 설립
‘순환하는 장학금’ 토대로 혁신

학교법인 동국대가 건학이념인 불교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건학위원회’를 공식 출범한 지 6개월만에, ‘2021년 중앙일보 대학평가’에서 9위라는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이는 건학위원회의 불교중흥 · 동국발전 · 건학불사 3대 지표 아래 모든 구성원이 부단한 노력을 했기에 거둔 성과다.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 최고위원장 돈관 스님〈사진〉은 11월 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건학위원회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스님은 “동국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 제2의 건학이 필요하다는 건학위원회 고문 자승 스님의 원력이 출범 기틀이 됐다”며 “동국 발전과 불교중흥의 뜻에 어긋하지 않게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지난 10월 28일 최고위원장으로 임명된 돈관 스님은 14개 산하 학교와 기관을 다니며 건학위원회 설립을 이끌었다. 실제 학교법인 동국대 건학위원회는 11월 16일 금산중 · 고등학교를 마지막으로 산하 기관 건학위원회 설립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건학위원회는 교육 · 의료 · 지역 · 글로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총 115개의 세부 사업을 정리 · 논의 중이다. 돈관 스님은 “교육 분야 53개, 의료 분야 25개, 지역 분야 23개, 글로벌 분야 14개 등 총 115개 세부사업을 정하고 기관별로 의견을 접수 중”이라며 “매주 한 차례 이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



각 분과위원회의 토론 통해서 추진 과제 정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장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는 △산하 학교 · 기관 법당 개선 △장학제도 혁신 △동문 기업 중심 취업박람회 개최를 꼽았다.

스님은 “전국 학교와 기관을 다녀보니 현재 시대에 부합되지 않거나 위상에 맞지 않는 법당들이 많았다”면서 “건학이념 구현을 위해서는 법당 시설부터 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학금 제도 혁신은 ‘학생은 등록금에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학위원회의 발원이 담긴 것이다. 건학위원회는 4년간 장학금을 받아 학교를 다니고, 사회 진출 뒤에 후배들에게 회향하는 순환적 장학제도를 계획하고 있다.

돈관 스님은 “모든 동국대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전국민이 다니고 싶은 대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내년 중 개최될 취업박람회는 양질의 동문 기업들을 학생들에게 알리고, 동문 기업들은 좋은 인재를 미리 파악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돈관 스님은 “건학위 고문 자승 스님은 항상 ‘하나되는 동국’을 강조하신다. 동국대와 산하 학교 · 기관들은 모두 하나가 돼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 출재가 감소, 이유 있다”

화합과혁신위 연석워크숍서
명법 스님 “문제설정 선행”



“한국불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급한 대안 모색보다 바른 문제설정이 선행돼야 한다. 조계종 출가자와 신도 감소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불교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고 있는지 반문해야 한다.”

해인사 국일암 감원 명법 스님〈사진〉이 11월 16일 조계종 화합과혁신위원회(위원장 정념)가 개최한 상임위원회 및 정책팀 연석워크숍에서 ‘한국불교는 지속가능한가’의 문제에 대해 무거운 화두를 던졌다.

이날 워크숍은 현대사회의 탈종교화 현상, 초연결사회로의 급격한 전환 등 시대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불교 위기를 인식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명법 스님은 주제발제를 통해 “현재의 한국불교, 조계종이 직면한 위기는 종교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를 전달하는 형식과 이를 구성하고 있는 공동체 문화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님은 “불교가 제공하는 종교적 체험은 진실한 것이지만,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들에 의해 진정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며 “결국 한국불교의 위기는 내용적인 부분, 콘텐츠의 문제가 아니라 형식, 즉 콘텐츠를 전달하는 사람과 방식, 공동체 문화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직언하기도 했다.

때문에 스님은 “서둘러 대안을 마련하기보다 바른 문제설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사단법인 세계불교교황청
World Buddhism Monarchy Corporation

본 청은 네팔 세계불교승가재단에서 인정을 받아 한국문화관광부 소관 종교단체법인설립허가 제 2020-11호를 받아 세계적인 종교단체로 활동중에 있습니다.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에 네팔정부관계자들과 세계불교교황청건립불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각국 고승들의 염원으로 발족이 된 단체이므로 불조의 혜명아래 중생구제와 불법홍포로 세계평화를 위하여 불국토 건설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탄생지 룸비니에서 모든 행사를 주관 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이니 원융화합을 목표로 다 함께 참여바랍니다.
앞으로 세계불교교황청 명의를 도용하거나 무단사용 했을시는 법적 책임이 따를 것입니다.

세계불교교황청 청장 석능인
임원, 이사진 일동 합장

●**홈페이지** : www.monarchywbc.com
대구시 북구 칠곡 중앙대로 291 2층 사단법인 세계불교교황청
●**행정실** : 053)321-5008 ●**팩스** : 053)321-6008 ●**Email** : buddhasangha@naver.com
●**행정국장** : 010-7335-9753 ●**행정실장** : 010-3698-1943
●**종무실** : 053)352-0400 ●**팩스** : 053)325-4848 ●**Email** : sambo111@hanmail.net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5길 197 세계불교교황청 총본산 각황사

각 종단 및 사찰 가입환영

- 종단 단체등록증 발급함
- 사찰등록증, 승려증, 수계증 발급함
- 법계(품계)증서 발급함
- 사찰보호 및 관리운영지원함
- 가입한 개인사찰은 소유권 인정 및 일체 관여하지 않음
-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앞면 사본 1매
  여권용사진(가사장삼수지) 1매
  입회원서는 행정원에 구비되어있음
- 현재 가입된 국내외 단체는 국내 24개 종단, 국외 5개 종단, 사찰 122개 등록되어있습니다.
- 본 청에 소속된 승려는 입적 후 절차에 따라 사십구재 및 영구제사 부도탑 설치함